

제지, 상반기 “최대호황” 구가

한솔제지 영업이익 861억원 … 환율 하락에 원가절감 노력

국내 제지 생산기업들이 2002년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호황을 누리며 상반기 대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쇄용지기업들은 원자재인 펄프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월드컵과 선거 등 특수에 힘입어 수요가 꾸준히 늘어 이익이 크게 늘었다.

특히, 한솔제지를 비롯해 신무림제지, 한국제지 등은 상반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상이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제지는 이미 5월까지 경상이익 239억원을 기록해 2001년 경상이익 수준을 달성했다.

원화환율이 떨어진 것도 원재료를 수입하는 제지기업들에는 호재가 됐으며, 원가절감 노력도 반영됐다.

한솔제지(대표 선우영석)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4962억원, 영업이익 861억원, 경상이익 50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회복에 따른 판매 호조와 함께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효과가 반영됐다.

신무림제지(대표 이원수)는 반기에 매출액 2020억원, 영업이익 340억원, 경상이익 331억원을 기록했다. 2001년 상반기 매출액은 1947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영업이익(134억원), 경상이익(15억원)은 각각 154%, 2107% 증가했다.

국내 제지 시장은 신문용지, 인쇄용지, 위생용지(화장지·생리대 등), 판지 등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생산기업은 총 25개에 달하고 있다.

인쇄용지의 시장규모는 약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인쇄용지 중 백상지는 한솔제지, 신무림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흥원제지 등 6사가 생산하고 있다.

6사의 주력품목은 화학 펄프만으로 제조한 고급 인쇄용지로 주요 수요처가 인쇄소·출판사 등인 백상지이며, 도료를 코팅한 정밀인쇄용지인 아트지는 생산량의 약 60-70%를 내수판매하고 있다.

제지시장은 1997년 IMF로 인한 수요감소와 1999년 국내 일부 제조기업들의 공장증설로 공급과잉이 심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의 제지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특히 2000년 초부터 인도네시아의 중국 APP가 경영위기에 직면하자 제지가격에 대해 무차별 덤핑공세를 취함에 따라 공급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그후 2001년 2월 APP의 부도로 제지 공급이 중단되자 공급과잉이 해소됨과 동시에 제지가격이 회복추세에 있어 2002년 현재 재무상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제지 시장점유율(2001)

(단위: 억원, %)

구 분	한 솔 제 지	신 무 림 제 지	신 호 제 지	한 국 제 지	계 성 제 지	흥 원 제 지	합 계
점 유 율	33	15	22	11	10	9	100
매 출 액	8,515	3,814	5,667	2,706	2,348	2,070	25,120

자료) 한국제지공업연합회(2001년 말 기준)

인쇄용지 중 백상지의 주원료는 펄프(Pulp)로 국내수요의 80%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로 국제 펄프가격의 변동이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국제 펄프가격은 1999년 이후 세계 제지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2000년 7-8월 톤당 680-700달러로 상승했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2001년 초 380달러에서 2002년 5월 현재 350달러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